깨어 있으라 / 막 13:3-13

[서론]

예수님의 가르침은 후반부로 갈수록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다. 본문과 병행구절인 1. (,)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나온다. 성서학자들은 이 세 군데 말씀을 '감람산의 대화' 혹은 2. '( )'이라고 부른다.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기록된 예언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본론]

그 예언들을 보면 재림 직전에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과 적그리스도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심화될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산모가 아이를 낳기 직전에 겪는 3. ( )과 같은 것이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해산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 후에는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복이 뒤따른다. 그리고 주님도 이 모든 일의 절정, 복음의 결론은 당신이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종말은 두렵고, 어둡고, 차갑고, 절망적이지만 주님이 알려주시는 종말은 4. ( ) 종말이다.

주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성전을 바라보시며 장차 되어질 일을 알려주신다. 오늘날 종말을 살아 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데 이는 헬라어로 5. '( )는 '방심하지 않고 온전히 깨어 있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또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우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자신의 이름을 '그레고리'(Gregory)로 고쳐 지은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늘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였다. 이 단어가 신약에 6. ( )회 나오는데, 특별히 '재림'과 관련하여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본문

마지막 부분(vv. 33－37)에 보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된다.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느 시간에 오실런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때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온전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주님과 함께 고통에 참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마 26:38) 성도는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할 때 그분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 또 하나는 원수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 때, 아직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 이전이었을 때는 7. (　　)가 성도의 상징이었다. 물고기는 항상 눈을 뜨고 산다. 잠잘 때도, 심지어 죽을 때도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깨어 있다. 그렇다. 우리는 누구나 신앙의 여정에서 영적으로 졸 때가 있다. 때로 아예 영적인 깊은 잠을 잘 때도 있다. 그러나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본 장 맨 마지막에서 8. “(　　)”고 말씀하신다. 이는 주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들은 제자들 뿐만 아니고, 모든 주님의 제자들,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까지 포함하는 말씀이다. 즉 성도라면 아무도 예외 없이 지켜야할 말씀인 것이다.

[결론]

‘카르페 디엠’(Carpe diem, 송길원 작사, 방영섭 작곡)이라는 노래가 있다. 여기에 두 라틴어 문구가 나온다. 하나는 ‘카르페 디엠’이고 다른 하나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다. 전자는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의미고, 후자는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이다. 하나는 살아 있는 현재를, 다른 하나는 죽음을 말하지만 이 두 문구는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일맥상통한다. 왜냐면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매 순간을 함부로, 또 허투루 살아갈 수 없고 충실히 살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내일'이 아닌가?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원한다.

[적용 및 기도]

오늘 배운 내용을 삶 속에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자.

- 오늘 나는 신앙의 어떤 잠을 깨워야 하는가? 예배, 봉사, 교제 등
- 오늘 나의 종말신앙은 흔들림이 없는가?
- 종말신앙으로 내가 이겨 내야 할 나의 삶의 고난은 무엇인가?

[해답]

1. 마태복음 24 장, 누가복음 21 장
2. 작은 계시록
3. 해산의 고통
4. 밝고, 따뜻하고, 행복한
5. 그레고레오(γρηγόριος)
6. 22 회
7. 물고기[ἰχθύς: Ιησους(예수), Χριστος(그리스도), Θεου(하나님), Υιος(아들), Σωτηρ(구원자)]
8.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v. 37)